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20세기 중후반에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④ 괴리되고, 일회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중은 뉴스를 ⑤ 기피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 ‘공공저널리즘’이 등장했다.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 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 관념을 ⑥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⑦ 과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공공 저널리즘은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 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공공 저널리즘은 언론이 ⑧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주관성이 개입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이 사회 과학적 방법을 통해 ⑨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등의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숙고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 1.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듀이는 공중을 어떠한 존재로 보았는가?
- ② 공공 저널리즘이 중심 의제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 ③ 공중의 일상과 괴리된 보도가 불러온 결과는 무엇인가?
- ④ 공공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는 무엇인가?
- ⑤ 언론인의 전문화는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 2. ⑦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중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 ② 공중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 문제를 해결했음을 전제로 한다.
- ③ 공중이 공공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 ④ 공중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때 실현 가능하다.
- ⑤ 공중이 공공 저널리즘의 취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녀야 할 요건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사례 1] A 지역 ○○ 신문사는 지역민 인터뷰를 통해 그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높은 범죄율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범죄 문제에 관해 자문할 지원자를 모집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역민과 사회 지도자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지역 자문단 회의에서 범죄 퇴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신문사는 그 결과를 취합·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시민 포럼 등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A 지역의 범죄율은 크게 낮아졌다.

[사례 2] B 지역 △△ 신문사는 설문을 통해 지역민의 최근 관심이 지역 경제 위기임을 파악하여, 전문가와 지역민 대상의 집단 인터뷰를 마련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제 행사 유치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전문가는 B 지역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행사 유치를 강력히 원하는 지역민의 입장에 동화된 신문사는 B 지역이 적합한 후보지라고 보도했다. 최종적으로 B 지역은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MEMO

- ① [사례 1]에서 치안상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듀이와 로젠은 모두 공공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공중이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겠군.
- ② [사례 1]에서 신문사가 지역민, 사회 지도자, 전문가 등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유도한 것에 대해, 듀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겠군.
- ③ [사례 1]에서 신문사가 공정한 절차로 지역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단 회의의 논의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 마이어는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평가하겠군.
- ④ [사례 2]에서 지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대해, 로젠판과 마이어는 모두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겠군.
- ⑤ [사례 2]에서 신문사가 지역민과 인터뷰하고 수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것에 대해, 리프만은 공중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비추어 신문사의 취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겠군.

4. 문맥상 ①~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 동떨어지고
- ② ② : 멀리하였다
- ③ ③ : 깨달을
- ④ ④ : 알맞은
- ⑤ ⑤ : 이루어지는

**[1문단]**

1)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저널리즘의 '정의된 개념'이 등장하였다.

저널리즘 =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

-> 저널리즘은 기자활동이네?

2) 20세기 중후반에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로 권력에 대한 내용을 피상적으로 다루었다.

(의문점): 뭐야? 20세기 때에는 언론이 저널리즘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권력 집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잖아. (공적 관심X)

여기서 만약 20세기에 밀줄 쳤다면 반성하자. 지금 시기가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어떠한 시기에 저널리즘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3)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⑥ 과리되고, 일회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중은 뉴스를 ⑤ 기피하였다.

윗 문장에서 했던 생각 덕에 어렵지 않다.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 일회적 문제 제기(잠시만 주목을 받았다)만을 했다 = 저널리즘을 지키지 못했다.

계속해서 정의된 개념을 떠올리며 독해해야한다.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4)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 '공공저널리즘'이 등장했다.

공공저널리즘이 '공중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잡는다고?

아까 첫 문장에서는 '공적 관심'이 큰 것을 중심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뭐야, '공적', 이랑 '공중'이 같은 말이야? 생각해보니 둘다 '대중'을 이야기 하고 있는 어휘이네?

->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기에 공공(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의제를 가지고 보도를 한다는거겠지?

(어휘의 축자적 의미):

공공저널리즘 = 공공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한 저널리즘

**Comment**

(1) 정의된 개념은 단기 배경지식이다.

- 너에게 낯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의'의 설명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정의'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일까?

-> '~이란 ~이다'의 방식(정확하게 항상 이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은 너에게 낯선 개념(다소 추상적일 것이다)을 설명할 때 시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설명 방식을 통해 추상적으로 너에게 다가오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이다.

-> 너는 글의 시작점에서 낯선 개념을 만날 것이고 필자는 높은 확률로 정의된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이 정의를 한 번만 읽는다고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정의된 개념을 n번 등장시키면서 너에게 추상적이었던 개념을 점차 구체화해줄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설명문들이 지니는 교집합이다.

(2) 문장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첫 문장의 정의된 개념을 제대로 확보한 독자라면 '저널리즘이 지켜지지 않네?'와 같은 의문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문장은 문장들 간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드러낸다.

- 이처럼 문장의 의미는 이전에 서술되었던 정보들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형성한다. 문장을 읽으면서 '앞에서 무엇을 읽었지? 그리고 무엇을 연결시킬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중요한 태도이다.

**Remark**

- 만약 해당 글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기본기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와, 이 구간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라며 독해하기 난해한 문장을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다만 이야기했다시피 기본기가 탄탄했어야 풀리는 문제뿐이다. 기본기가 탄탄했다면 '이렇게 쉽게 풀려도 되나?' 싶을 정도였을 것이다. 코멘트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 반드시 숙지하자.

## 2문단

1)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리프만〉과 〈듀이〉는 언론 & 공중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설명 대상(리프만과 듀이)이 2개 이상 등장했으므로, 독해를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능동적으로’ 찾아보자.

2)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 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 관념을 ⑤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고정 관념’이라는 워딩이 재진술되고 있다. (중요)

(리프만)은 공중을 고정된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분별할 수 있는 이도 드물다고 판단했다’라는 구절을 미루어 보아....

(리프만)은 다소 공중을 맹청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또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구절이 ‘고정 관념’을 지닌 공중과 잘 연결된다. 결국 둘 다 소 공중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드린다는 느낌보다는  
‘이전에 읽었던 것을 점점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음미해보자.

4) 따라서 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중이 맹청하기 때문에, 언론이 똑똑해야한다고 한다! 어렵지 않은 ‘공중과 언론간의 관계’이다.

5) 반면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본다고?

-> 공중을 똑똑하다고 본거잖아!!

사실 이 구절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6) 그는 ⑦ 평화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아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여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적 담론의 장’이라는 워딩이 재진술되고 있다. (중요)

듀이는 공중이 똑똑하다고 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즉 ‘공적 담론’이 형성되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한다.

## Comment

(3) 설명 대상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차이점을 능동적으로 확보하는 습관을 기르자.

- 차이점을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글도 있겠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너가 어려움을 느끼는 글일 경우 차이점을 대놓고 이야기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차이점을 찾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중요해진다.
- 팁을 주자면, 설명 대상을 다른 워딩을 써서 설명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리프만〉과 〈듀이〉 두 인물(서로 이름이 다르다. 고로 설명 대상은 두 개 이상이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이 진행된다. 당연히 이 두 인물을 데려와서 설명하는 이유는, 두 인물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간을 독해하며 이 두 인물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넘어갔어야 한다.

(4) 반복(재진술)되면 강조, 심화, 리듬감

- 우선 독서영역을 다루고 있으니 심화와 리듬감은 생략하도록 하자. ‘반복되면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달달 외우려고 들지 말자. 당연한 것이다. 중요하면 필자가 반복한다. 중요하면 시험에 출제된다. 이 명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
- > 실제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선지 ④번은 재진술되고 있는 ‘공적 담론의 장’을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라는 워딩으로 출제한다.

- 여기서 반복(재진술)을 무조건 같은 워딩을 사용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반복은 ‘같은 의미를 가진 어휘’들의 반복이다. 1문단을 독해할 때, 궁중, 공공, 공적이 모두 같은 말이 반복되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3문단**

1)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로젠〉이라는 처음 보는 학자가 등장했다.

-> 〈로젠〉은 이전 학자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등장시켰을 것이다.

근데.. 〈로젠〉이 〈듀이〉와 너무 비슷한데..?

->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공중을 둔다고? 이거 **공적 담론의 장**의 참여자를 이야기하는거 아니야? '공론장'이라는 워딩을 그대로 사용하네?

(의문점): 〈로젠〉이랑 뭐가 다르지...?

2) 이를 위해 공공 저널리즘은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 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로젠〉은 〈듀이〉가 언급하지 않은 '사회 과학적 방법'이 추가되었다. 설문, 회의, 인터뷰 등이 이 방법이라고 한다. (차이점 확보)

3)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공론장이 형성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한다.

-> 보조사 '만'이 활용되었다. 우선 문제해결을 하지 않더라도 공론장이 형성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납득):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애초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형성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해당 문단에서 이미 정해진 의미가 존재한다.

〈로젠〉과 〈듀이〉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로젠〉을 추가로 등장시킬 이유도, 문단을 나누면서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문단의 첫 문장을 읽을 때, '분명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너무 유사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 실제로 해당 사고과정을 거친다면 세 번째 문제의 ①번 선지를 보고 가볍게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어떤 지점이 다른지 확인하면서 읽었어야 한다. 분명 다른기 때문이다.

**Comment****(5) 사고과정 분석이 필요한 이유**

- 샘은 독해를 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사고를 모두 하는 것'이다. 이는 기출을 풀다보면 귀납적으로 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너무 간단하다. **선지화 되고 때문이다**. 만약 그 사고과정이 꽤나 핵심을 짚는다면 **정답 선지화** 된다.
- 최대한 글을 다 읽고 촘촘하게 사고를 전개하며, 이것이 어떻게 선지화되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쳐보아야 한다. 습관 들이도록 하자.

**4문단**

1) 공공 저널리즘은 언론이 ④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객관성 측면' =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고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객관성 측면에 대한 정의가 나왔으나, 어휘의 축자 속에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

(납득): 언론은 너무 치우쳐진 상태로 보도하면 안 되지.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취지와 맞아 떨어진다.

-> 이것을 지켜야하는데, 지키지 못해서 비판받는다고 한다.

2)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주관성이 개입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수단이 등장할 것이다.

3)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이 사회 과학적 방법을 통해 ⑤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아까 읽었던 '사회 과학적 방법'(인터뷰 등)을 객관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답한다.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잊어서는 안된다.**

4)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등의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숙고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앞 문장에서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느끼며 독해했으면 된다. 사회 과학적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한다.

**빠른 정답**

1	⑤	2	④	3	③	4	⑤	5	②
---	---	---	---	---	---	---	---	---	---